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여름불교학교'가 열린다. 물놀이를 비롯해 영어공부와 명상, 선무도 수련,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

신나는 여름방학! 사찰서 물놀이하고 영어공부도

모두가 기다리는 여름불교학교

사찰 내 워터파크 · 숲체험 · 명상
영어 · 인성 · 선무도 교육도 인기
'종합선물세트' 프로그램들 풍성
"야답법석 즐기려면 사찰오세요"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여름수련회가 조금씩 재개되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신행 ·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산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린이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임은호 · 하성미 기자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놀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23일 경내 앞마당에서 '2023년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아이좋아! 물놀이 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교는 5세부터 청소년까지 참여 가능하다. 물놀이 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부스, 놀이마당, 포토존 등으로 운영되며 워터 슬라이드가 조성된 대형 풀장에서 물놀이와 함께 부채만들기, 타투스티커, 줄넘기, 조별 공굴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티셔츠 등 기념품도 제공된다. 선착순 300명 모집. 03)768-8638

영어를 배우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캠프로 유명한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7월 30일~8월 1일 선원 내에서 '제15회 자우 스님의 신나는 영어 담마 캠프'를 개최한다. 워터파크 물놀이와 영어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게임 등이 준비됐다.

자우 스님은 "'행복은 지금 여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바로 지금 이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예쁜 마음을 찾아볼 예정"이라면서 "스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야단법석을 통해 마음이 신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6012-1731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는 7월 27일~8월 12일 총 4회에 걸쳐 '2023 해인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참된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을 나눠 진행된다. 사찰 기본예절교육, 팔만대장경 관람, 성철 스님 사리탑 명상, 홍류동계곡 물놀이, 1080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각 부별 30명 선착순 모집. 055)934-3006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5~6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물의 나라 홍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테마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미니운동회 및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등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찬불가와 함께 배우는 율동 시간이 마련되며 치유의 소리 싱잉볼 명상으로 마음의 청량함도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매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여름수련회를 개최해왔는데 코로나로 중지됐던 기간이 아쉬웠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계획한 만큼 사찰에서 보낸 한여름의 추억이 마음에 불법의 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등학생 선착순 50명. 051)508-0345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7월 30일~8월 5일 경내 일원에서 '제63회 화랑수련회'를 개최한다. 화랑수련회를 통해 천년고찰 불교문화체험과 산사의 기운을 받으며 호연지기를 익히는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주일 간 공동체 수행 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배워 미래 사회 리더십을 육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승병의 기개가 살아 숨 쉬는 선무도 수련과 신라시대 화랑의 기상을 일깨우는 승마와 국궁, 자아를 찾아가는 108배가 준비됐다. 아울러 자아성찰 및 예절 교육을 위해 힐링명상과 요가 수련, 발우공양, 다도 등을 진행한다.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교육도 이어진다. 문화유적은 동경주 일대로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해중릉을 방문하며 함월산 및 감포 바닷길 트레킹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수련회가 될 것"이라며 "선무도와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춘 성지로 신라의 화랑 정신을 마주 할 수 있는 골굴사에서 움직이는 선(禪)을 체험하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775-1689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8월 12~13일 경내 일원에서 '삼광사 어린이 여름문화캠프'를 개최한다. 유튜브 제작과 로봇과학, 응급구조, 공예 미술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마음을 알아보는 미술심리 상담과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사찰탐방과 명상, 108배, 탑돌이, 다도 시간도 진행된다.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물놀이와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삼광사 측은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직업 체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선착순 100명. 참가비 무료. 051)808-7111~6

마산 정법사(주지 광우)는 7월 22일 경내에서 '불기2567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를 위한 명상 마인드래치(Mindratch)와 만(卍)자와 수행을 상징하는 물고기, 종, 연꽃 등을 만드는 도미노 활동이 진행된다. 마인드래치는 마인드와 스크래치의 합성어로 인쇄된 불교 관련 도안을 나무펜으로 긁어 완성하는 심리치료 미술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진행되는 도미노 활동은 불교 관련 도안에 맞춰 도미노를 쌓아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는 조별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외 정법사를 알아보는 미션놀이와 레크레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100명 선착순이다. 참가비 무료. 055)246-8393

이밖에도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 는 7월 28일~8월 20일 4차에 걸쳐 '제50회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매회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특히 8월 19~20일은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061)755-0107

구산선문 최초가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주지 승묵)는 7월 27일~8월 13일 3차에 걸쳐 대승불교의 정수를 알아가는 '여름 배움의 숲' 대중강좌를 개최한다. 010-9654-3031

김천 직지사(주지 장명)도 8월 4~6일 경내 만덕전 등지에서 '어린이 여름 캠프'를 실시한다. 박물관 관람 예절과 찬불가 배우기, 우리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퀴즈 올림픽 등이 준비됐다. 054)429-1716

불교계 단체들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8월 1~5일 일본 큐슈 사가현에서 '제12회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과 지도자 5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사찰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가정 홈스테이, 전통문화와 놀이 체험,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723-8090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 4~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및 마곡사 일대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를 연다. '찬란한 도반, 빛나는 지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대회는 사찰순례와 특강, 청춘토크파티 등이 이어진다. 찬란한 지금을 보내고싶은 20대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10-7323-0239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